

# “끝까지 믿고 도와주신 시민·노동계·경제계에 감사”



광주형 일자리 첫 성과를 탄생

## <3> 이용섭 광주시장 인터뷰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사회통합형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성과물인 경형 SUV ‘캐스퍼’가 이달 중순부터 본격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사업 성공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선 7기 들어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어렵게 성사시키고 성과를 만들어낸 이용섭 광주 시장은 5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끝까지 믿고 도와주신 시민들과 노동계·지역 경제계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광주형일자리 첫 성과물이 나왔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달라.

▲감개무량하다. 3년 전 광주시장 취임 때만해도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다. 광주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들어선 빛그린산단은 제가 2007년 건설교통부장관 재임 시절 건설을 추진했기에 더욱 기쁘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 요인을 꼽는다면.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광주에 들어섰다. 현대차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 2년 8개월만이다. 그리고 GGM공장을 착공한지 1년9개월 만에 ‘완성차 생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3대 성공 요인을 꼽으려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바라는 광주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성원,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현대차의 미래를 내다 본 상생 결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채택, 이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과 정치권의 초당적 지원이다. 이처럼 모두가 한 뜻으로 이 사업을 성원해 준 배경에는 단순히 광주의 일자리 창출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 해소와

많은 현안 중 가장 힘들었던 사업  
노사상생도시 만들자는 일념 뿐

“광주가 한국경제 새 역사 쓴 것”

경제 체질 강화와 경쟁력 향상의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 상생과 원-하청 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도 한 점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본다.

-세계 유례없는 모델이어서 난관이 많았을텐데.

▲그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비가 있었다. 시장 취임 이후 지하철 2호선 건설 추진 등 많은 현안들을 해결했지만, 가장 힘들었던 사업 중 하나였다.

노사 간 이견 조정 과정에 몇 시간씩 기다려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서야 할 때도 있었다.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 때문에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열정을 쏟아 극복한 것 같다.

-사업 추진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정말로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노사 주체인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현대차의 서로 다른 입장 차이 조정, 거액의 자본금(2300억)과 차입금(3454억 원) 모집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끊임없이 제기하는 일부의 의혹제기에 대응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특히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오해로 현대차 노조의 반발이 극심했다. 그 때 울산까지 찾아가 이 사업의 진정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분들 모두가 도움을 주신 분들이고, 각자 자기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균형점이 찾아졌다.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가장 힘들었던 사례를 하나 꼽는다면.

▲2018년 12월 6일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투자협약식을 체결하기로 잠정합의가 됐다. 따라서 전날 저녁에 청와대 경호실과 의전실 관계자들이 행사 현장 등을 점검중이었고, 시는 행사 준비와 리허설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그날 밤 8시에 노사 간 이견으로 협약식 행사 취소되고 말았다. 현대차와의 투자협



이용섭 시장

약이 체결 직전에 무산되다보니 충격이 컸다.

노와 사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기는 정말 어려웠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오늘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막판에 노동계 참여 설득이 어려웠을 텐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흔들림이 있었다. 유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이 힘들어 할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역사에 남는 일이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나올 일을 하고 있다. 노사상생의 일자리를 광주가 만들어 내지 못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 우리가 독립 운동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가지”고. 처음가는 길이라 많은 난관에 부딪혔지만, 우리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고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들자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

도 대한민국 미래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윤 의장님과 한국노총 관계자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다.

-광주형일자리 사업 모델로 만든 GGM에서 첫 차량이 양산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한다면.

▲GGM에서 생산되는 경형SUV ‘캐스퍼’는 2대 주주인 현대차가 브랜드, 판매, 서비스까지 모두 담당한다. 세계적으로 SUV 선호추세이고, 고령화·1인 가구 확대 추세에 맞춰 값싸고 품질 좋은 ‘캐스퍼’가 출시되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 4개월동안 1만2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지만, 향후 자동차 시장 변화 추이를 보면서 친환경 자동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GGM 공장은 연산 10만대 생산규모를 갖췄고, 향후 20만대 증설까지 가능하다.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소차, 전기차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과 대중성을 고려해서 내연 SUV차를 생산하지만, 향후 자동차 시장 변화 추이를 보면서 친환경 자동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GGM 공장이 위치한 빛그린산단에는 국내 유일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등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형일자리 사업 모델인 GGM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미래형 자동차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GM의 최대 관건은 향후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상생 기업문화가 확실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GGM 종사자들은 대표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노동자이고 모두가 사용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앞으로도 꾸준히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상생형 노사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생산 초기에 성능과 안전을 인정받아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 GGM에서 첫 생산된 캐스퍼에 대한 판매 호조가 이어질 경우 생산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GGM의 기술력 또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정 시점에 친환경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 것도 관건이다. GGM 생산라인은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혼류 생산 시스템을 갖춰 시설 일부 조정만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이 가능하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국내 산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 2에 의거해 GGM 공장을 ‘제1호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의결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노사민정 사회대타협의 상생일자리’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자리’ ‘23년만에 국내 완성차 생산의 전환점을 만든 일자리’라면서 높은 평가를 해 줬다.

따라서 GGM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세액 공제 우대 등의 정부지원이 이뤄지게 되었다. 또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건립’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건립’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 진입도로 개설, 산학융합지구 조성’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경형SUV 부품 사업화 지원에 5035억원(국비 2944억)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모델의 전격적 확산을 이끈 기폭제 역할을 했다.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부산, 신안까지 상생협약이 확산되었다. 이 지역들을 모두 합하면 직접고용이 1만2000명(간접 포함시 13만명), 그리고 51조원 이상의 투자가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한국노총 유종해 의장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다.

-끝으로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낸 시민들에게 한마디.

▲광주는 지금 떠나는 광주에서 찾아오는 광주로, 정치 1번지에 더해 경제1번지로 대변신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시대를 앞서온 우리 광주가 인공 지능시대 개막,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성공, 전국에서 유일하게 금년 매출 출생수 증가, 2045년 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등을 통해 ‘약무후남 시무국’이라는 역사적 명제를 실현해가고 있는 것이다.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동안 뿌린 혁신의 씨앗들이 결실을 맺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외국인 코로나 확산세...불법체류자도 백신 접종

###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명령...순천·광양 사흘새 학생 11명 확진

광주에서 외국인 관련 코로나19 감염세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대상 백신 단계접종까지 시작했지만, 당분간 확산세를 꺾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집단·밀집 생활을 하고, 방역당국과의 의사소통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 때문이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에선 이날 오후 2시 기준 2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4263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중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 검사에서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광산구 소재 외국인 검사 관련 확진자 5명, 광산구 소재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1명 등이 추가됐다. 최근까지 광산구 소

재 외국인 검사 관련 누적 확진자는 149명으로, 외국인 관련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광산구를 중심으로 3곳의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해 오는 10일 까지 내외국인 구분없이 근로자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광주지역 외국인 주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광산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외국인 단체 접종도 진행 중이다. 1회 접종만으로 끝나는 안전 백신을 활

용해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 주민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대상자는 백신접종을 신청한 외국인 주민 4392명이다. 광산구는 등록 외국인은 물론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해 백신 접종을 유도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이틀간 17명이 신규확진됐다. 지난 4일 순천 6명, 여수 3명, 무안 2명, 나주·광양·해남·장성·완도 각 1명 등 16명이 나왔고 5일 오전까지 순천에서 1명이 추가돼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2692명이 됐다. 최근 사흘 사이 순천과 광양 등 동부권 초·중학교에서 11명의 학생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이 협의 회를 갖고 학교 내 감염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김형호 기자 khh@

## 투자, 하실분

- ▶ 덕남동, 빛고를 전대병원 인근
- ▶ 임야 661㎡(구 200평) 지분매매
- ▶ 장/단기 개발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매 - 6000만원(평당 30만원)

중개환영. 010-3605-5000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무 시간	주간 : 09:00 ~ 18:00 야간 : 19:00 ~ 04:00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
급여 조건	주간 : 192만 + @ 야간 : 240만 + @ 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통근 버스	광주 전 지역 운행
복리 후생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업무	물류(입고, 출고, 재고) 지게차/허브(분류, 상하차)
지원 자격	성별 및 학력 무관 성년인 자 [단, 정년(60세) 미만인 자] 초보 가능, 주부 가능, 통발 입사 가능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희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

### 해산으로 인한 채권자의 및 구주권 제출공고(2차)

성산유화 주식회사는 2021년 07월 12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해산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의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산으로 인한 청산금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의 주주 및 절권자께서는 위의 기간 내에 회사의 본점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6일  
성산유화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군서로 394  
청산인 정인성

### 상속환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박경래(660211-XXXXXX)  
• 최후주소: 광주 서구 죽봉대로 132번길 11 401호(광명동, 수정빌)

피상속인 방 박경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관공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 8월 20일로 신청하여 2021년 8월 27일 심판 인용 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거나 비리하여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9월 6일  
• 상속인: 1. 최현숙(640304-XXXXXX) 광주 남구 광복마을6길 18-1(주월동)  
2. 최영옥(660509-XXXXXX) 시흥시 함송로 35 105동 103호 (정왕동, 문명센스빌아파트)  
3. 최태영(710830-XXXXXX) 광주 남구 수박동로 20-4(월산동)  
• 신고기간: 2021. 9. 6. ~ 2021. 11. 15.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3, 최태영의 주소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주제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누자장 06:30 \* 다음카레 배 광주지산학회 ☎ 010 7794 6920

### 산행안내

9월12일(일)  
▲광주지산악회 9월12일(일) 경북 포함&내연산 산행, 염